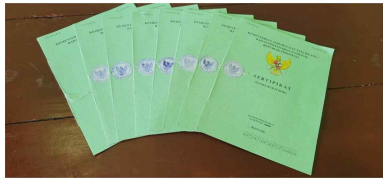


## 조요한, 변성미 선교사 선교 편지 (2023년 3월)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의 살롬으로 문안드립니다. 2023년을 맞이하고 처음으로 선교편지를 보냅니다. 2023년 저희 가정도 선교사로서 벌써 18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지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1월과 2월에 있었던 선교지 소식을 전합니다.

### 스리위자야신학교 사역



가정 먼저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은 저희 신학교와 주변 땅 12헥타(3만 6천평)대한 등기부 등록이 잘 마쳐졌고 땅문서를 이장님으로부터 2월21일에 수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땅문서 등록하는데 1헥타에 보통 2천만원 정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서티파캇(등기부 등록)에 1헥타에 3천만원 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억 이상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아직 빨렘방 시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농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땅문서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략 1헥타 당 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모든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21일부터 24일까지 포항 빛내리교회의 신수일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교회사 특강과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은 보통 인도네시아 전통교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부흥회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낯설어합니다. 이번 신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신학교 부흥회 사역은 학생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사 특강은 조요한선교사가, 부흥회는 변성미선교사가 통역하였습니다.

### 아낙달람종족 선교 사역

조요한선교사는 박사논문 연구를 위해 1월27일부터 2월7일까지 12일 동안 아낙달람종족 사역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역자를 파송한 아낙달람종족 사역지는 5곳입니다. 깜뽕 두렌(트로피무스 전도사 사역), 숭에이 뽀라까르(멕시 전도사-델리마 사모 사역), 에스빠데(도밍구스 전도사-에를리나 사모),





드망(완디 전도사 사역), 송에이 빠꾸(빠라나따 전도사 사역) 지역입니다. 조선교사는 5곳의 사역지를 모두 방문하였고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송에이 꾸뚜르 지역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그곳의 아낙달람종족 사람들과 교제하였습니다. 이번 아낙달람종족 사역지 방문을 통해 몇 가지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사진/송에이 꾸뚜르 지역을 방문하다)

첫째, 송에이 빠꾸 지역에 초등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초등학생들이 60여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초등학교는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고 길이 너무 좋지 않을 뿐더러 초등학교 교장의 비리와 나태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6년을 학교를 다녀도 인도네시아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래서 송에이 빠꾸 마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고 결국은 초등학교를 열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 현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는 송에이 빠꾸에 1헥타의 땅을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할 경우 교실 3실과 사무실 1실을 만들면 됩니다. 대략 일 천만원의 후원이 있으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초등학교를 할 경우 송에이 꾸뚜르 사람들도 그곳의 초등학생 30여명을 보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송에이 빠꾸의 기독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송에이 빠꾸 지역 아이들)



둘째, 드망 지역에 땅이 나왔습니다. 3헥타의 땅입니다. 땅 값은 대략 2천 5백만원입니다. 이곳의 땅이 구입되면 주변의 아낙달람종족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그 땅은 이미 팜유 농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아낙달람종족 사람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진/ 드망지역에 나온 땅 3헥타)

셋째, 방코의 선교센터 부지가 나왔습니다. 2헥타의 땅인데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는 땅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로에서 진입로를 내려면 200미터x15미터의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땅 주인이 진입로 값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의 땅구입 논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방코의 아낙달람종족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뽕두렌지역에 집이 없는 세 가정이 임시 집(4mx4m)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선교사들이 돕기로 하였습니다. 총 백오십만원 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깜뽕 두렌에 가장 필요한 물을 위해 지난 2월 초에 우물을 관정하였습니다. 백오십만원을 지원하여서 50미터까지 관정하였고 물을 찾았습니다. 이제 트로피무스전도사의 사택 확장실에는 늘 물이 넘쳐납니다. 또한 깜뽕두렌 동네에서 물이 부족할 경우도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한국의 한 교회에서 방코의 아낙달람종족 아이들

을 위해 도서 기금을 백만원 기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코에 있는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르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책을 골랐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아쉬운 것은 방코는 너무 작은 소도시라 책방에 책이 너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코 선교

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꾸밀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사진/방코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아이들)

## 가족 이야기



조요한선교사는 2월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아낙달람종족 사역지인 갬뽕두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식 예배를 집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은 반드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례는 반드시 목사가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결혼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빨렘방에서 갬뽕두렌을 가기 위해서는 소형 버스를 타고 갑니다. 18일 오후 3시에 버스를 타고 19일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있어서 길에서 2시간 정도 비를 피해 있다가 마중 나온 트로피무스 전도사의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가서 잠시 눈을 부친 후 10시에 결혼식 예배를 인도한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6시에 다시 버스를 타고 빨렘방에 다음 날 아침 8시에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20일부터 설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한국에서 신목사님이 오셔서 바로 통역하며 사역을 하다 보니 장염이 생겨서 일주일간 계속 설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2월26일에 빨렘방에 있는 병원에 급히 입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도착하는 위드재단의 팀들 선교여행을 인도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결국 모두 취소하고 함께 사역을 진행해왔던 박현주선교사님께 모든 짐을 넘겨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은 거의 10여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1월부터 쉬지않고 돌아다니는 일정으로 몸의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퇴원하여 정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1월17일에 큰아들 정하가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받아 인도네시아 빨렘방으로 왔습니다. 군대에서 한국-인도네시아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니 한국 정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하가 올 때 둘째 수하도 같이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모두 모이게 되어서 너무 감



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3월 24일에 조요한선교사는 박사논문 형식심사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요한선교사는 3월부터 박사논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으로 가서 3개월 정도 대학교에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쓰려고 하였지만 그 계획을 수정하여 이곳 빨렘방 신학교에서 머물면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큰아들 정하는 2월1일에 제대하였고 다음 2학기에 복학할 때까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거주지인 콤콤하우스라는 곳에 숙소를 구하였습니다. 또 둘째 아들 수하는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서 첫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윤하는 이곳 빨렘방에서 중3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변성미 선교사는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 교회 음악과 자기 개발 과목을 1학년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그룹인 MIPI(Mom's in Prayer International) 매주 10개의 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변성미선교사는 3월 말에 인도네시아 전국 MIPI 총회에 참석하러 중부자와로 4박5일 일정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변성미선교사는 손바닥에 있는 물혹은 아직 있지만 많이 아프지 않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물혹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3월의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스리위자야신학교 신학석사(Th.M) 과정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박사학위를 가진 6명의 교수진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원래 교수진은 박사학위 5명이었지만 교육부에서 이번에 6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신학교 땅 12헥타에 대한 등기부 등록(서티피캇)이 저희 선교사들이 소유한 미트라 스리위자야 재단 재산으로 잘 등록될 수 있도록. 또한 신학교 내의 건물에 대한 등록 작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아낙달람종족 드망지역 주민들이 이주해서 살 땅 3헥타가 나왔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구입 비용이 마련될 수 있도록.
4. 아낙달람종족 아이들이 공부하며 살고 있는 방코 선교센터에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5. 아낙달람종족 선교 사역을 위한 새로운 방코의 선교센터를 위해서.

2023년에도 변함없이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과 한국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3월 7일

인도네시아 남부수마트라의 빨렘방에서  
선교사 조요한, 변성미 드립니다.